

戊午(西紀一九七八年)譜序

韓半島에 韓族이 定着한 以來 半萬年の 星霜이 經하였다한

다 故로 鄭氏의 起源 文字記錄이 不可했던 先史時代에 發祥되

었음은 確實하다.

記錄이 傳하는 바에 依하면 韓族이 部族國家를 形成하였다

三韓時代의 辰韓斯盧 六部村長의 首長이며 新羅 建國功臣이 있

던 諱 智伯虎가 西紀三二年(儒理王九年)에 珍支部가 本彼部로

改稱되면서 樂浪候로 封爵되고 姓을 鄭氏로 下賜받았다 한다.

因하여 東邦의 모든 鄭氏姓은 樂浪候 智伯虎를 得姓始祖로 삼

고 韓族의 巨姓大族의 하나로 后孫이 繁盛하게 되었다.

歲月의 經過함에 따라 得姓始祖의 后裔들도 鄉貫의 分派가

形成되어 東萊鄭氏의 一門도 그中 顯著한 鄉貫分派의 하나가

되었다 東萊鄭氏의 得姓始祖의 系代나 分籍의 經緯에 對한

考證할만한 文獻은 없으나 麗朝에 安逸戶長이신 諱 繪文(遠祖)

公에 이르러 世居地의 東萊를 鄉貫으로 稱하여 東萊鄭氏가 分

籍되었으며 工後 系代는 未詳이나 太府卿 諱 穆公의 基礎에

依하면 그의祖 甫尹戶長 諱 之速公을 一世祖로 그의父 文道公을 二世로 繼承하였으려 甫尹戶長公 以後의 世系繼承은 確證할 수가 있다 따라서 東萊鄭氏의 得貫始祖는 繪文(速祖)公으로 推證되다

甲山 東萊鄭氏가 咸鏡道 甲山에 入北定着케되 緣由는 考證할

바가 없으나 累世로 留傳되어온 譜書에 依하면 愛得公 以前의

甲山入北東萊鄭氏의 起源에 關한 記錄이 戊午水災에 流失되어

未詳이라 했고 愛得公 以後의 瑩域과 系代의 昭穆序次가 昭詳

히 收錄되어 있다 따라서 甲山入北始祖를 愛得公으로 하여 一

世로 삼아 于今 十餘代를 經過하여 三甲의 巨姓土閔이 되고

있다 然이나 入北始祖 以前의 記錄이 流失되어 未詳임으로 因

하여 鄉貫을 或稱 東萊 或稱 溫陽으로 門中公論이 右姓 左姓

한마가 있다 故로 譜書를 製作함에 있어 그間 事由를 記錄함

이 緊要하다 本是 愛得公以後 敎代에는 東萊로 本貫을 삼았음

은 七世必仁公以後 長津으로 移居한 一門은 現在에도 東萊를

本貫으로 稱하고 있음으로도 立證되는바 있다 다만 十世復興公

에 이르러 入北祖先의 根源을 考證함에 있어 溫陽鄭氏大同譜에
諱 光世公이 있다하여 本貫을 溫陽으로 改稱하고 墓碣에 溫陽
鄭氏로 刻記한 데서 本貫의 混同이 惹起되었다 然이나 後世에
이르러 咸鏡道 利原 姜成宇家에서 그의 五代祖 栗溪公의 全國
大姓譜野史가 發見됨에 따라 入北鄭氏의 起源에 閔한 記錄이
發見되니 있다 俗稱 姜成宇野史는 門兄 哲欽(號元明) 觀朝(號國瑞)의 兩人이 直接 閱覽하여 傳言한 바에 依하면 栗溪公이
野史를 作成하여 壁櫥에 保管하였으려 五代孫 成宇에 이르러
改築次 壁을 倒毀하였더니 野史와 五代孫成宇開拓이란 牙見指示
까지 發見되었다 野史에 依하면 愛得公以後 五世까지는 累代記
錄이 或 漢字表記의 諱字의 錯誤가 있으나 音同으로 表示되었
으며 入北經緯로는 三世 光世公이 中宗祖 趙光祖의 己卯士禍에
連累되어 惠山鎮僉節制使를 拜受하게 되니 그 祖父 愛得公 父
哲公과 家率을 거느리고 赴任하였고 그后 移居于甲山이라 했으
며 本貫은 東萊인데 入北前 本是 溫陽에 居하였으므로 世稱
溫陽家라 하였다고 한다 專만 아니라 三世 光世公의 塋域所在은

傳해오고 있지만 工 先代 二代는 失基되었던바 野史에는 이
二代의 淸域이 杜成山下平突處라 記錄되어 있으며 이는 現今의
山南面洞遷里로 虛川의 盧氏先山이며 俗稱 智吉之古塚이라 傳해
온바 六世의 智吉公의 諱字가 있는것과 對比하여 信僖할만하다
하섯다

按전대 復興公이 溫陽으로 本貫을 改稱한것은 野史의 世稱溫
陽家라 한바에 따라 混同된바 있는듯 하다 野史의 記錄과 留
傳된 譜書가 本貫以外에는 符合된바가 많으므로 工后 野史에
따라 甲山鄭氏의 本貫을 東萊로 바로잡는 것이 祖上根本을 바
르게 하는바라 하였으나 門中에는 累代에 溫陽으로 稱하였으니
東萊로 改稱함은 換父易祖라하여 不肯하는 見解도 있어 本貫是
非가 있었던바라 따라서 入北始祖의 由來를 考證하기 爲하여
姪秦國을 비롯하여 門中有志와 東萊鄭氏大同譜와 溫陽鄭氏大同譜
및 서울大學校所藏 奎章閣圖書等을 두루 閱覽했으니 代系의 分
派를 分揀할바가 없어 工間의 事情을 一再刊하는 譜書의 序에
記錄하여 逸失함을 免하기를 期하며 아울러 東萊鄭氏의 由來를

記錄하노라

不幸히도 國土가 兩斷되어 南域에 散逸居住하는 門中에게 傳
 할 祖上의 根元에 對한 記錄이 없던바 門叔 洛善氏가 持來한
 家傳의 譜書를 保有하고 있었으며 또 門姪 泰植이 그의 父
 禮殷(號清一)의 手書寫本을 持來하였으므로 去年에 門孫 東模
 의 努力으로 簞寫本을 製作配布하였던바 譜書로서의 體制가
 不備할뿐外 未記載된 門中子孫이 多有하여 譜書다운 譜冊을 再
 訂하게 되었던바 門姪 求亨의 勞苦와 門中諸佐의 積極的인 協
 贊이 있어 여기에 甲山入北東萊鄭氏分派本을 製作하게 되었으니
 平生의 宿願을 達한바 門中諸佐는 이로 因하여 以培其根하여
 子孫의 繁榮에 勞心하기를 當부하노라。

西紀一九七八年 十月九日

서을에서 十五代孫 文欽 謹書

戊午京本序

南北이 分斷되니 於焉 三十三年이란 年輪이 지났다 祖上이
 代代로 繁居하였고 自身이 生을 받은 山川을 떠나 流浪의 他
 官에서 望鄉의 恨이 累積된 歲月이다 生面의 古老들은 이미
 他界했을 것이요 兄弟叔姪들의 安否는 물을길 조차 없었다 子息을
 두고 온 사람들은 斷腸의 苦痛에 잠못이룬 밤이들 얼마나 되었
 겠는가 그리운 故鄉을 생각하다 先祖의 塋域이 이름없는 雜茅
 에 뒤덮였을지 모르겠다 想念에 이르게 되면 恨이 骨髓에 사
 모침을 느낀다

그 동안 南域 땅에 散在해 있던 門中들이 相互呼答하여 一堂에
 모으니 面識이 없던 親戚이 寸數를 相論하여 祖孫叔姪의 序烈
 이 明白해져서 七十餘世帶에 이르니 甲山出身越南 東萊鄭氏 門中
 會가 組織되어 幾十年을 經過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十月九日
 뜻깊은 한글날을 擇하여 由緒깊은 秘苑에서 墓參을 못하는
 犢罪를 望祭로서 代한지도 몇해를 지냈다 이같은 모든 일은 門
 中이 門兄 文欽公을 中心으로 해서 團合되었기 때문이며 또 門

兄께서 古稀를 마다하고 門中諸般百事를 心慮해주시고 引導해
주시니 德分이다.

前년에 門兄께서 門中の 根本을 后孫에게 傳해야 할 必要를
느끼셔서 門孫 東模로 하여금 族譜를 騰寫本으로 製作配布하
셨던마 譜書의 體制가 不備하여 令般 家姪求亨으로 하여금 譜
書다운 譜書를 補完하니 그 뜻이 壯하다 하니 할 수 없다 不肖
은 그間 門中會長의 莫重大任을 맡은 緣故로 이에 東萊鄭氏甲
山分派京本譜의 序文을 草하게되니 光榮이 이에 비길데 없으며
이 譜冊으로 말미아마 우리 門中이 日益繁盛하기를 期待한다.

西紀一九七八年 戊午 初秋

十五代孫 서울大學校教授 哲學博士 良殷 謹識

舊譜序

東萊之鄭_이 粵自麗朝僕射公_로 始為名臣_야 四子登第_야 乃為簪纓世族_대 厥後

_에 譜牒_이 不明_야 有郭崇韜_이 拜子儀之誥_야 識者_이 病焉_나 一日_에 引儀與善_이

來言於余曰我族_이 雖鉅_나 門系_이 多舛_야 欲為釐整_면 恐汗漫莫究_세 近取五代

祖判書公世系_야 其子孫_을 悉加搜訪_나 或京或鄉_에 其麗_이 寔繁_라 聞見之外_에

更具一价_야 修書于內外諸族_야 報答畢至_고 其中_에 有未盡者_란 乃躬自辨詰其

實而後_에 已矣_나 其用心_이 可謂勤矣_로 再從弟純駸_이 幹而有文_나 引儀_이 謀與

入梓_야 閱一歲而告成_나 父父子子兄弟弟弟_이 粲然不紊_야 真一代之寶_라 良可

愛也_로 余_이 嘗觀古人_의 為譜_나 或倣漢代年表_고 或以大宗小宗_로 分為之_야 事

例_이 雖殊_나 其所以分其氏族_며 考其世次_야 則一也_로 我國_의 男婚女嫁_를 舉為

族類_야 其姓名_을 殆不可一_一 遍識_라 繼其宗者_이 宜各詳其所自出_야 以盡本派

_한 然後_에 與此書_로 合而為一_면 則可以功省而事備矣_나 吾輩_이 當先加敦睦_대

由親及疏여하自近而遠면하庶不負作譜之義리諸君은 以爲如何오

萬曆十三年二月에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

事鄭惟吉은 謹序라하

東萊鄭氏派譜卷之一

一世

愛得

以上譜系諱放前
戊午水災今不可
考故口書有徵為
派譜

二世

子哲

三世

子光世入甲始祖

配全州安氏父哲貞
墓盧川杜銅遷里
荷田洞墓坐合靈

四世

子廣文無后

子恩孫

配高氏父京天甲辰
生墓以上遷坐同
原合靈

五世

子應秋

配洪氏墓盧川杜古
銅遷雲霧德良
坐原合靈

六世

子仁吉見下

配金海金氏父輔
墓以上良坐同原
合靈

子智吉見下

辛酉十月十三日
生忌丙辰六月二
十八日

配姜氏甲午十月九
日生忌辛巳七月
七日墓雲霧德
良坐合靈

子義吉見下

子信吉無后

跋文

옛부터 나라에는 史가 있고 집에는 乘이 族에는 譜가 傳來하고 있으
니 그 뜻은 하나이다 史는 그書を 읽으면 그나라는 어지럽고 乘은 그
載를 읽으면 그집은 더러지고 譜는 그系를 읽으면 그族은 破하게
되니 이로써 譜와 史乘의 貴重함을 깨달을 것이다 더욱 사람
의 根本인 血統을 밝히고 根本을 잊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系譜를
밝힐 것이라 程伊川이 말하시였다 그런즉 後孫환 우리는 先祖의
來歷을 밝히고 遺蹟을 기리기리 傳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崇祖精
神을 昂揚하고 族親間에 敦篤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음 世代가
이러한 美風良俗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니 즉 이로써 우리의 系統이 永久히 繼承
될 것이 하니겠는가 그래서 甲山에 世居한 우리門은 오래동안 宿願이든 譜를
編製함에 있어 옛부터 傳來해온 譜를 基本으로 하고 先世系의 文獻인

乙酉(西紀五八五年)創修譜의序文과墓碑文그리고先世系의略譜를收錄하여
參考에供하고저하였다그리고故鄉에두고은譜書를淸(諱禮殷)公이手
書字本한原本一部를永久히保傳코져轉寫하여末尾에添付하였으며入北
祖(愛得公)로부터現世代에이르는後孫名單을系圖로하고山所圖를새로히
作成하여押入하였다그리고修譜함에있어다만섭섭한것은故鄉에두고은 많
은宗親들과함께修譜하지못함이그대섭섭하고아쉬운바있다그러나머지
않아國土가統一되고故鄉에서大同譜가 이루어질날은普待하면서이譜의刊行을
契機로崇祖敦睦의美風을加層振作하기바라며宗人들이物心兩面의協贊
과助役해주시고月泉鄭桂順先生과題字를써주시고松雲鄭世濬先生에
서感謝드리고바이다

西紀一九七八年 戊午十月九日

十六世孫

求亨

謹跋